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6월 2일(금)  
--(음력 4월 14일)--  
Пятница  
2 июня 2023 г.  
№ 21 (12038)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6월 1일은 국제 어린이 보호의 날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 사할린 대표단, 사업 사절단으로 중국 방문

사할린 상공회의소 대표단이 중국의 기업가들에게 사할린의 투자기회를 발표한 가운데 200명의 투자자들과 만남을 갖고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사절단의 결과들이 투자사업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됐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5월26일 러시아 기업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여 기념일을 축하하며 사할린의 사업체와 사업가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지난해에 우리는 2,700억 루블리라는 기록적인 투자를 받았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특별 군사작전으로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투자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초기 원료가공 부문에 대한 투자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우리 경제의 다각화 과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현재 기업인들과 정부는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 사업의 후속으로 노동단체, 일자리, 주요 사회적 프로그램의 실행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업의 성공과 세금 방식의 환원은 사할린 지역의 사회적 분야를 발전시킵니다. 경제발전이 없이는 사회복지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사할린주의 발전에 기여하신 우리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라고 투자위원회 회의의 참가자들에게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인사를 전했다.

## 푸틴 대통령, 투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사할린 주지사의 노력 높이 평가

지난 5월 31일(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최한 정부 인사들과의 화상 회의에 국가 평의회에서 투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도 참가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러시아의 모든 지역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대해 보고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브 제1부총리는 투자 정

책의 핵심은 모든 지역에서 투자자를 위해 통일되고 이해하기 쉬운 규칙 도입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작업이 사할린에 잘 돼 있다는 점도 평가했다.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투자 매력 작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알레리 리마렌코 투자위원장과 그의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 주지사, 언론인들과 특별 군사작전 지원, 사할린행 티켓, 장애인 재활에 대해 논의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사할린주 대중 정보매체의 편집장들과 만나 현재 언론인과 사회가 가장 걱정하는 질문들에 답했다. 대화 중에 주택 공공사업, 의료 및 사회 분야 문제와 특별 군사작전의 참전자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다.

특별 군사작전 참전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향하는 몇 가지 사업이 거론됐는데 특히 정부는 식량, 장비, 몇 개 유형의 부족한 군복을 제공하여 작전 현장의 군인들을 돕고 있으며, 동시에 사할린에 남겨진 가족들도 잊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전적으로 생활을 돕고 있다. 세째 조치는 병사들을 위한 휴가 조직으로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기 시작했다. 이 계획은 러시아 국방부와 사할린 주정부가 공동으로 고안해냈다. 그리고 참전병의 아내와 어머니들은 작전

지역으로 방문할 기회도 주어졌다.

또 하나의 열띤 주제는 최근 사할린의 연금재단과 사회적 보험의 업무로서 최근에 이에 대해 재활을 위한 기술적 장비 이용 문제로 많은 질책을 받았다. 주지사에 따르면 상황 전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하며, 장애인들로부터 1,800건의 불만을 제기하게 한 공무원들에게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기자들은 사할린 지역의 교통 접근성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는데 모두를 위한 티켓은 충분하다고 주지사가 답했다. 아예로플로트는 유즈노사할린스크-모스크바행 항공편을 추가 증편했고, 쿠릴 열도에 대해서는 현재 쿠나쉬르와 이투르프로 가는 항공편이 매일 2대가 운항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이것도 증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고려신문

## 2023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06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 단신

### 2023년 초부터 쿠릴열도 내 마을에서 8,000명 이상이 건강검진을 받다

연초부터 쿠릴열도 마을들에서 8,500명이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는 농촌 보건소에 설치된 '디지털 응급진료센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를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의료기관에 자료를 전송하며, 사할린의 우수 전문의들로부터 원격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할린 지역에는 총23개의 현대식 조산원이 운영되고 있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미디어 포럼 "극동연방관구: 모든 것을 승리를 위해!"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미디어 포럼 "극동연방관구: 모든 것을 승리를 위해!"를 개최한다. 6월 1일부터 3일까지 극동 지역 각지에서 약 500명의 미디어 전문가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모인다. 이는 사할린 주 정부에서 보도하였다.

포럼 세션은 특수 군사 작전, 지역사회 및 국내 경제 동원, 애국 교육 및 기타 관련 주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 "조국 수호자" 전 러시아 재단 사할린 지부 문을 열어

유즈노사할린스크 지역 재활 센터 건물에 "조국 수호자" 특별 군사작전지원지역 재단의 사할린 지부가 문을 열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주도로 설립된 이 단체는 모든 특수 군사 작전 참전 용사와 사망한 특수 군사 작전 참가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지부는 6월 1일부터 특별 군사 작전 참가자 접수를 시작했다.

이곳에서 군인과 그 가족들은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 의약품, 영양소 치료, 일상적인 문제 해결 지원 등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 조치를 받게 된다. 군인은 재산 등록, 자녀의 유치원 배정, 재향 군인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교육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전문가에게 문의할 수 있다.

### 가수 하빔, 어린이날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을 축하

가수 하빔이 6월 1일 어린이날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주민들을 축하했다. 인기 가수이자 비디오 블로거인 하빔은 6월 1일 도시 문화 및 휴식 공원에서 열린 축하 행사에서 공연을 펼쳤다.

이 콘서트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리는 "페르워흐 페스티벌(어린이 대표들의 축제)"의 하이라이트 행사였다. 엔터테인먼트와 축제는 '코스모스'경기장에서 18시에 시작되었다.

### 신문 창간 74주년 맞이하어

6월 1일 하루는 한국에서 온 전화로 시작되었다. 새고려신문의 오랜 애독자인 전채련 할머니의 전화로, 새고려신문 창간일을 축하해주셨다. 사할린 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그는 2021년에 영주귀국하여 안산 고향마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만92세의 전채련 어르신은 사할린에 계실 때도 우리 한민족지 창간일을 잊지 않고 전화도 하고 필기로 축하문을 보내셨다. 70여년간 우리 신문을 애독해주신 전채련 할머니께 대단히 고맙고 고개 숙여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사실 그렇다. 1949년 6월 1일, 74년 전에, '조선 로동자'(현 새고려신문)의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동포들이 발행하는 러시아, 사할린의 유일한 한민족지는 한글과 민족 얼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는 카자흐스탄의 '고려일보'가 창간 100주년을 맞이했다. 필자는 이와 관련 한국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면서 또 다시 우리 사할린 한민족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날까지 우리 신문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해주신 모든 단체, 기관, 그리고 애독자 분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독자 여러분, 우리 함께 내년 새고려신문 75주년을 향해 해 볼까요.

새고려신문사 배 빅토리아 대표

### 상트페테르부르크, 제2회 <사할린동포문제: 해결 방안>국제실무학회의 개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오는 6월 3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 방안'이란 주제로 국제실무학회의가 개최된다.

작년에 이어 진행되는 이 컨퍼런스에는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문제, 한국 내 거주 사할린 한인 차세대 현황, 사할린동포 귀환에 대한 한국정부의 책임과 역할 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주최자로 나선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한인회(회장 최영구)에서 밝혔다.

한국에서는 박봉수 '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 최경옥 전 영상대 법학 교수, 사할린에서는 동포 2세인 이채인 씨와 전 네웰스크 시장 박 블라디미르 씨, 모스크바에서는 지역간 단체인 사할린한인회(모스크바) 김태성 회장과 김태이 및 박 알렉산드르 임원, 카자흐스탄에서는 사할린향우회 리화섭 회장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찾았다.

3일 학술회의에 앞서 사할린동포들은 주요 사할린한인문제로 6월 1일, 2일 이틀간 좌담회, 토론회,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공유하며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책을 세우고자 한다.

컨퍼런스 준비조직위원회는 3월부터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여 사할린을 비롯하여 러시아 여러 지역, 독립국가연합 등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있었다. 이를 위해 앙케이트 조사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조직을 위한 모금운동도 펼쳤다.

(배순신 기자)



6월 1일(목) 첫 좌담회에서 토론하는 모습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한인회 제공)

### '재외동포재단'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6월 1일 해단식 개최

1997년 설립된 재외동포재단 해산,  
재외동포청 6월 5일 개청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라, 1997년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 이하 재단)이 해산된다. 재단은 6월 1일 해단식을 개최했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재단법'의 제정으로 설립되었으며, '세계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운영되어 왔다. 재단의 2023년 예산은 약 630억 원이며, 3실 4부 1추진단에서 현재 7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26년간 재외동포 교육사업,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한상네트워크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주요 초청사업인 세계한인회장대회(23회), 세계한상대회(20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24회), 세계한인정치인포럼(8회) 등을 개최했으며, 매년 3~4천 여 건의 재외동포사회 시행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왔다. 또한, 다문화 취약동포와 해외 입양동포, 고려인동포 등 소외동포들의 안정 정착 및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아울러, 2020년~2021년 2년 연속 경영실적평가 우수등급(A)을 획득했으며, 2021년에는 '20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외교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21년~2022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도 2년 연속으로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20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S등급을 획득했다.

재외동포재단의 제10대 이사장인 김성곤 이사장은 퇴임사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에 감사드린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출범할 재외동포청의 최우선 사업으로 한글학교 활성화와 재외동포 청소년연수 확대, 세계한상대회의 세계화를 다뤄 줄 것을 부탁드린다. 더불어 향후 재외동포정책은 세계시민으로서 인류의 번영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양성한다는 원대한 비전 속에 만들어져야 하며,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되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 이 모 저 모

#### <디코로시아> 미식 마라톤, 사할린에서 처음 개최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미식 마라톤이 사할린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고 사할린주 관광부가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15개의 음식점체들은 지역 야생 식물 이용을 기반으로 한 특별 메뉴를 제공한다. 사할린의 주요 야생 식용식물 재료로는 머위, 산마늘, 고사리, 다시마, 버섯, 바다썩, 동의나물이 포함된다.

"'디코로시아' 메뉴에는 크랜베리, 오미자, 클로포브카, 부르스니키 등 사할린의 전통 열매들이 빠질 수 없다. 요리사들은 고객 1인분에 950루블리 상당의 3개 요리를 1세트로 제공하게 된다."라고 사할린 관광부가 전했다.

관광부는 특별추천 메뉴로 요리사 창작 요리와 음료가 포함된다고 덧붙인 가운데 사할린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는 사할린 요리사들의 걸작을 맛보고, 스스로 새로운 맛의 조합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 기회이기도 하다.

관광부는 '디코로시아'가 사할린 음식점체들에게는 축제 요리만이 아니라 강조하며, 미식의 향연은 식당의 공간을 넘어 야외 공간에서도 이어진다고 전했다.

미식 마라톤은 사할린주 관광부 주최, 사할린 관광정보센터가 '사쿠라' 사할린 레스토랑 및 요리협회, 문화관광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한다.

#### 가스트로마라фон «Дикоросия» впервые проходит на Сахалине

На Сахалине впервые проводят гастромаарафон «Дикоросия».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длится с 29 мая по 12 июня,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пециальное меню на основе блюд из местных дикоросов предложат 15 заведени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состав войдут главные островные дикоросы: лопух, черемша, папоротник, морская капуста, грибочки, морская полынь, калужница.

«Меню "Дикоросии" не обойдется и без традицион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ягод — клюквы, лимонника, клоповки, брусники. Шеф-повара предложат гостям сету из трех блюд по единой цене — 950 рублей», — отметили в областном минтуризма.

В ведомстве добавили, что спецпредложения будут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отдельные авторские блюда или напитки. У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а появится уникальный шанс попробовать шедевры от островных шефов и открыть для себя новые вкусовые сочетани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Дикоросия» — это не только фестивальное меню в заведениях Сахалина.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праздник выйдет за рамки помещений и предложит мероприятия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Гастромаарафон организует Сахалинский туриско-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по инициативе министерства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региональной ассоциацией кулинаров и рестораторов «Сакура», а также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 사회복지센터, 사할린 주민들에게 당뇨병에 대해 알려

사할린 사회복지센터는 사할린 주민들에게 당뇨병과의 싸움에 대해 설명한 가운데 사할린주 보건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전했다.

"이 행사는 당뇨병 학교 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11,500명의 사할린 주민들이 이 불쾌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통 연금 수급자들이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마다 다르며, 때로는 특정 정보를 추가해 달라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되기도 합니다. 올해 이미 두 차례의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연말까지 세 차례 더 사할린의 환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교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건소 의료 예방 부서장 아이굴 아흐메토히가 말했다.

사할린의 사람들은 진료소에서 관찰을 받고 있는 경우 당뇨병 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 Центр соцобслуживания рассказал сахалинцам о борьбе с сахарным диабетом

О борьбе с сахарным диабетом рассказал сахалинцам центр соцобслуживания.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ает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здрав.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школы по борьбе с сахарным диабетом. Сейчас непри-

ятным заболеванием страдают 11,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Зачастую, по оценкам экспертов, болезнью страдают пенсионеры.

Мы регулярно получаем положительные отзывы от наших слушателей. Программа меняется от потока к потоку, иногда свои коррективы вносят пациенты, которые просят добави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информацию. В этом году было проведено уже два цикла лекций, до конца года мы встретимся еще с тремя группами сахалинских пациентов. Наши занятия проходят в онлайн-формате, поэтому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нашей школе могут жители со всех районов, - рассказывает завотделом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центр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доровья Айгуль Ахметова.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школе по борьбе с диабетом может любой сахалинец, состоящий на наблюдении в диспансере.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узнать у лечащего врача.

#### 사할린에 처음으로 적십자 사회적 지원 텐트 개설

러시아 적십자사 사할린 지부에서 첫 사회적 지원 텐트를 개설했다. 여기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러시아 법률 및 사법 정보국에서 전했다. 문 없이 공개된 사회적 지원 텐트에서는 따뜻한 음식과 의류, 위생용품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가운데 매일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유치해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 훈련을 진행하는 데 이는 그들을 기획에 참여하게 하고, 게임 방식으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매월 자원봉사적 열정의 퇴색을 예방하고, 갈등 상황 해결과 자원봉사팀의 긍정적 분위기 유지에 따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 적십자사 사할린 지부의 심리학 직원이 돕고 있다고 러시아 적십자사 사할린 지부장 일로나 율로쉬나가 밝혔다.

#### На Сахалине появилась первая социальная палатка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Сахалинск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го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КК) открыло первую социальную палатку. Там могут получать помощь люди, оказавшие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издание РАПСИ.

(8면에 계속)

동포사회 소식

###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어르신들을 '고르니 워즈두흐'스키장에 모셔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의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26일(월) 시한인회가 운영하는 노인정의 할머니들을 '고르니 워즈두흐'스포츠관 광단지에 모셨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오른 어르신들은 이날 야외에서 몹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국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양식 그네도 타고, 체육도 하였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가져온 반찬을 맛있게 나누어 드셨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할머니와 자원봉사자 모두가 기분이 최고였다고 시한인회에서 전했다.



(배순신 기자)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제공)

### <사할린한인>시한인회, 고아원 어린이들을 위해 즐거운 이벤트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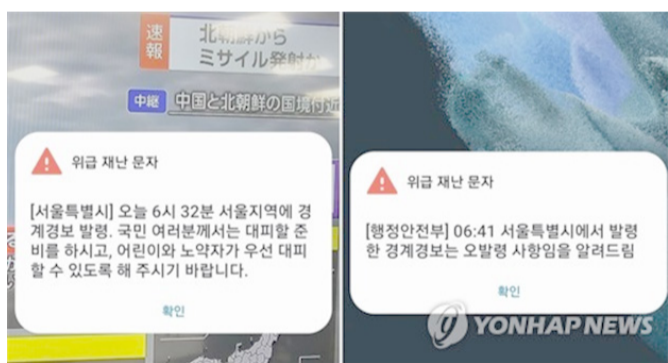
6월 1일은 국제 어린이 보호의 날이다. 러시아에서는 이날 수많은 행사가 펼쳐진다. 이날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곤)의 자원봉사자들이 트로이츠크예 고아원 3-7세의 아이들을 위해 즐거운 이벤트 자리를 마련했다. 부모없이 고아원에서 자라는 이 13명의 아이 중 장애아도 있고 병에 걸린 아이들도 있다. 시한인회 회원들은 이 아이들에게 유즈노사할린스크 '메가베료즈카' 쇼핑몰에 있는 놀이기구도 태워주고, 어린이놀이터에서 같이 놀아주고 점심도 대접했다. 또한 '사할린한인'시한인회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달달한' 선물세트도 전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진심 어린 기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시한인회 측이 전했다.

(배순신 기자) (<사할린한인>시한인회 제공)



### 北인공위성 발사 관련 백령지역 경계경보 서울은 오발령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 문자는 오발령 사항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서울시는 이어 6시41분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 2023.5.31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 북한이 31일 서해 방향으로 군 정찰위성을 발사해 백령·대청 지역에 경계경보가 울렸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발사해 이 일대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계경보는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낙하물 우려가 있을 때, 공습경보는 실제 미사일 공격이 있을 때 발령된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서울시는 경보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시가 이날 오전 6시 41분께 보낸 위급재난문자는 잘못 발송된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오전 7시 3분께 안내문자로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이라고 안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급재난문자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모두 발송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 전역에 전송된 문자는 서울시가 오발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 선박 "사할린-8"이 8월 10일부터 정기 수리에 들어가

디젤 전기선 "사할린-9"의 예정된 수리가 완료되었다. 6월 4일부터 와니노 - 홈스크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할린 주 교통부의 보도부에 따르면 8월 10일부터 "사할린-8"호는 수리를 진행한다.

따라서 6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와니노 - 홈스크 노선에서 3척의 디젤 전기 선박이 화물과 승객을 운송할 예정이다. 화물선 "사할린-10"과 화물 여객선 "사할린-9"는 노선에 남게 된다.

또한 아무르 조선소는 와니노 - 홈스크 노선에 투입될 CNF11CPD 화물 및 승객 운송 겸용 페리 2척 "알렉산드르 데예프", "바실리 오셰프코프"의 건조가 완료되고 있다. "알렉산드르 데예프"호는 이미 본거지인 홈스크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 사할린, 2022년 러시아에서 가정생활 수준 3위를 차지

2022년 러시아 연방 85개 행정자치단체의 사회적 복지에 따른 순위에서 사할린이 3위를 차지했다고 통계청이 밝혔다.

야말로네네츠크 자치구에서는 평균 2자녀를 둔 가정이 최저 생계 지출 후에 118,310루블리가 남았고, 모스크바는 최저 생계 지출 후 89,626루블리가 남는 것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사할린은 자녀가 2명인 가정에서 최저 생계 지출 후 잔액이 78,624루블리 남았고, 자녀 1인 가정은 95,909루블리로 집계됐다.

인구세티야와 카바르디노-발카르카야 공화국은 최하위를 차지했다.

극동지역에서 최저 생계 지출을 빼고 자유로이 운용할 수 있는 잔액이 5만 루블리 이상의 순위로는 사할린주를 제외하고 마가단(69,460루블리), 사하 공화국(59,582루블리), 추코트카 자치구(59,810루블리)가 있다.

###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 남편 / 문정희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의 손수줍 되는 남자  
내게 잠 못 이루는 연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논하고 물어보고 싶다가도  
아차, 다 되어도 이것만은 안 되지 하고  
돌아누워 버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그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남자  
나에게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 준 남자

"결혼식 다녀왔어요. 아내의 사촌 동생. 비도 오고 가기 싫었죠. 그래도 어찌겠습니까. 사람 사는 게 그런 날 빠지면 한국에선 일단 패널리타 커지거든요. 따지고 보면 저야 뭐 워낙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스타일이긴한, 아내에게 패널리타 생긴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여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여 식장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꼭 이런 날 검정 구두를 꺼내야 할 때면, 이상할 정도로 글이 잘 풀리는 거. 괜히 서재에 있는 책들도 다시 읽고 싶어지고. 글은 또 어땠고요. 느닷없이 참도 잘도 써져서, 아주 책상머리에서 일어나기 싫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겨먹은 걸까요? 아닌가? 음, 나만 그런 건가, 아무튼.



다행히 도로가 그리 막히지 않았습니. 신랑은 싱글병글, 신부는 살짝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저야 뭐 식장 구석을 찾아 박수를 건네며, 예식이 어서 끝나길 기도했지요. 하나 더. 러시아산 키크랩 역시 뷔페 메뉴에 올라있기를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식이 정점에 이르며 다들 바짝 긴장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서투름이야말로 예식의 진정성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은 결혼식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왜냐구요? 결혼 자체를 아예 잘 안하거든요. 저야 아무 생각 없는 스타일이니 대학 재학 중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케이스. 그 때도 제 경우는 많이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모교에 강의를 나가 제 경우를 얘기하면, 요즘 학생들에겐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로 받아들여거든요. 드문 게 아니라, 없대네요, 아예. 요즘엔 더 더욱. 짜식들, 동거 비스무리한 건 끊기지 않고 잘도 하면서, 내송은. 내 다 알지, 다 알아.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미룹니다. 푹푹해진거지요, 마침내. 그렇게 인류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진화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결혼해서 얼른 애부터 낳으라고 하는 건 기획재정부나 국방부, 세무서에서 외치는 소리에 가까울 테니. 따지고 보면 제 외국인 친구들만 봐도 대부분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거든요. 일단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대다수.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혼이라는 절차가 오히려 형식과 자율 의지를 훼손하면서 서로의 족쇄로 돌변하기 십상일 테니. 아니 뭐, 인간의 심리라는 게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아, 어찌다가 얘기가 이렇게 흘러온 걸까, 아무튼.

한국의 결혼 파티는 굉장히 심심합니다. 짧은 예식의 무대를 관람한 뒤, 뷔페를 즐기지요. 그리고 귀가. 잠시나마 러시아의 파티가 그리웠습니다. 구두 밀장이 많아지게 다들 춤을 추고 있을 테니. 꼬냑과 보드카에 취해 엉망으로 몸을 흔들던 러시아와 프랑스의 파티들이 새삼 그리워지는 밤입니다. 음, 다시 나가야 하나?"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Новости диаспоры

### Сахалинские бабушки отдохнули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26 мая серебряные волонтер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провели очеред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рамках "Клуба пожилых людей". Как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АСК инфо, «подопечных пенсионеров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наших бабушек, привезли на вершину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где они пели корейские песни, танцевали, качались на качелях, делали посильные физические упражнения. Угощали друг друга принесенными блюдами. Надышались горным воздухом, зарядились оптимизмом и хорошим настроением. Ну, очень насыщенно провели день, всем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 В детском саду «Чебурашка» откроется отделение по тхэквондо

27 мая в МАДОУ 9 «Чебурашка» состоялся отчетный турнир, который провела Федерация рукопашного боя совместно с СК Торнадо (тхэквондо). Состязания прошли среди ребят 5-7 л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сообщает, что с 1 сентября на базе детского сада «Чебурашка» открывается отделение СК Торнадо по олимпийскому тхэквондо.

### Поддержим СВОИХ

28 мая подготовлена к отправке в зону СВО первая партия маскировочных сеток. В их изготовлении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члены ЮСМОО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и многие добровольные помощники, поддержавшие акцию «ВСЕ ДЛЯ ПОБЕДЫ!».

###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обсуждают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1 июня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состоялось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е совещание с участием корейских уче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и СНГ и просто людей с активной жизненной позицией. Это совещание прошло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спективы решения»,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3 июня.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перед конференцией на «круглых столах»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гост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бменяются мнениями 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по внесению изменений в Спец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инятый парлам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2020 г., обсудя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ачи судебного иск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оговорят о дальнейшей совмес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ыработают общую позицию по проблема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Для участия в форуме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съехались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з Сахалина, Москвы, Казахстана и т.д.

(Подготовила Виктория БЯ)

## Диета в обмен на любопытство

Сеул, 29 мая – ИА РУСКОР

Тои Суват, 45-летняя туристка из Таиланда, была удивлена, узнав, насколько дорогими стали рестораны в Южной Корее с момента ее последнего визита три года назад.

«Я была в Южной Корее до COVID-19 и очень многие рестораны здесь за три года повысили цены на продукты. Я помню, что тогда жареный цыпленок обычно стоил около 15 000 вон, а сейчас он стоит значительно больше 20 000 вон. Сейчас я более чувствительна к тратам», — сказала Суват.

34-летний турист из Тайваня Эн Ворачит также сказал, что он не может посетить Южную Корею, не беспокоясь больше о деньгах.

«В прошлый раз, когда я приезжал в Южную Корею, бутылка соджу в ресторанах стоила 3000 вон. Сейчас это стоит 5000 вон или больше. Цены на другие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также сильно выросли. Я не думаю, что смогу посещать Южную Корею столько раз, сколько хотелось бы в будущем», — сказал Ворачит.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средняя цена на восемь основных блюд в Сеуле, включая «самгиопсал», или свиную грудку; «самгиетанг», или куриный суп с женьшенем; и «наенгмен», или холодную лапшу; выросла в среднем на 16,3 процен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из-за резкого роста инфляции. Большинство ресторанов, как франчайзинговых, так и независимых, резко повысили цены за последний год из-за роста цен на пищевые ингредиенты и повышения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среди прочих факторов.

С апреля одна из крупнейших в стране сетей ресторанов жареной курицы Куосон F & B увеличила цену на курицу в своем меню максимум на 3000 вон. Burger King также повысил цены на некоторые свои наборы бургеров в среднем на 2 процента.

На острове Чеджудо, одном из ведущи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направлений Южной Кореи, туристы потратили на еду в среднем 660 000 вон на человека, что на 60 745 вон больше, чем они потратил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огласно опросу посетителей острова Чеджудо в 2022 году, опубликованному специальной самоуправляющейся провинцией Чеджудо и организацией туризма Чеджудо, самой большой жалобой туристов были возросшие расходы на поездки. Более 53 процентов респондентов заявили, что сейчас отдыхать на острове слишком дорого.

«Если дорожные расходы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одолжат расти, иностранным туристам будет сложнее посетить страну без финансового бремени», — сказала Суват.

## Полина Хан завоевала бронзу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2023 по тхэквондо в Баку

На чемпионате мира в Баку состоялись соревнования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до 73 килограммов у женщин.

30 мая ростовчанка Полина Хан вышла в полуфинал мирового первенства, победив спортсменку из Казахстана Жансель Дениз, возглавляющую всемирный рейтинг в данной категории.

В полуфинале Полина уступила французке Алтее Лорин и завершила турнир с бронзовой медалью. Это первая медаль сборной России на чемпионате мира по тхэквондо.

24-летняя Полина Хан является мастером спорта, вице-чемпионкой Европы, победительницей чемпионата Европы по тхэквондо среди молодежи, пятикратной чемпионкой России. В 2021 г. в Саудовской Аравии Полина завоевала золотую медаль I открыт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по тхэквондо среди женщин. Спортсменка тренируется в Ростове-на-Дону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лавного тренера клуба «Грандмастер» Артура Хана.

Чемпионат мира по тхэквондо-2023 пройдет в Баку с 29 мая по 4 июня. На этом мировом первенстве российские и белорус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выступают в качестве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нейтральных атлетов. На Чемпионат было отобрано 14 россиян. Соревнование будет отборочным на парижскую Олимпиаду-2024.



## В реестре ЮНЕСКО «Память мира» 20 из Кореи

Сеул, 31 мая – ИА РУСКОР

Архивные записи Южной Кореи, относящиеся к двум историческим народным революциям, которые, как считается,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демократизации страны, добавлены в реестр ЮНЕСКО «Память мира».

ЮНЕСКО на заседании своего исполнительного совета, состоявшемся в Париже, одобрила включение в реестр архивов революции 19 апреля, движения за демократизацию 1960 год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студентов, и крестьянской революции Донхак, вооруженного восстания, возглавляемого крестьянами и последователями религии донхак в 1894-95 годах во время правления династии Чосон.

Ранее архивы получили рекомендацию для добавления в список о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комитета ЮНЕСКО «Память мира», сообщило управление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жной Кореи (СНА).

Благодаря дополнению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объектов наследия Южной Кореи в списке ЮНЕСКО увеличилось до 18.

Впервые примерно за шесть лет с 2017 года документальное наследие Южной Кореи было внесено в реестр после включения королевской печати и коллекции инвеститурных книг династии Чосон (1392-1910), а также архивов Движения за погаш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долга с 1907 по 1910 год и «Чосон Тонгсинса»,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 из стары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записей корейских посланников в Японии.

По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архивы революции 19 апреля состоят из 1019 материалов, связанных с гражданским восстанием 1960 года, которое положило конец диктатуре пер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Ли Сын Мана в 1960 году.

Записи описывают причины и развитие революции, а также процесс послереволюционн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Они составлены из материал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статей СМИ, личных записей, отчетов о расследованиях, фотографий и видеозаписей. Они имеют значение как исторический от-

чет о достижении демократии ненасильствен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в противостоянии диктатуре.

Хотя в результате восстания погибли 186 ни в чем не повинных студентов и граждан и около 6000 других получили ранения, протестующие, включая старшеклас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университетов, сопротивлялись до конца, чтобы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е стремление к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Она была признана первой успешной не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народной революцией в Третьем мире и оказала влияние на студенческие движения по всему миру в 1960-х годах.

Архивы крестьянской революции Донхак являются важ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демонстрирующими современный переходный период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Коллекция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85 докумен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восстанием против коррупции в правящем классе и выступающих за общество, основанное на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и равенстве.

Коллекция включает данные, собранные во время исторического инцидента корей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рестьянскими отрядами Донхак, гражданскими лицами, участвовавшими в подавлении восстания, и японской миссией в Корею.

В процессе оценки для включения в реестр документы получили широкое признание за их значение в мировой истории как «хранилище памяти» корейских низов, которые боролись за универсальные ценности свободы, равенства и прав человека.

СНА оценило два недавно добавленных предмета как «исторические записи, которые внесли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демократии в Южной Корее» и «ценности, из которых люди не только в стране, но и во всем мире должны извлечь уроки и помнить».

Между те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Хон Чон Джондо» (Полная иллюстрация астрономической карты) также был включен в реестр ЮНЕСКО «Память мира».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у Севера теперь есть два пункта в списке наряду с «Муие Добо Тунцзи», учебником по боевым искусствам,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в 1790 году.

## Пхеньян осуждает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еула, Вашингтона и Токио

Сеул, 28 мая – ИА РУСКО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двергла резкой критике недавнее соглашение лидеров Южной Кореи, США и Японии об обмене данными о запусках ракет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заявив, что это только подвергнет их «кризису безопасности».

Критика прозвучал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Юн Сок Ёль,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жо Байден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Японии Фумио Кисида договорились углубля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област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в том числе в обмене данными о предупреждениях о ракетах, в ходе их трех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проведенных на полях саммита Большой семерки в Хиросиме, Япония.

«США и их последователи будут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подвергаться риску кризиса в област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пособствующего их окончатель-

ному краху из-за их безумных шагов по укреплению военного союза против КНДР и расширению военных учений для агрессии», — сказал Кан Джин Сон, аналитик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тношениям, в англоязычной статье, опубликованн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центральным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агентством.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Юн и Байден провели саммит в Вашингтоне и договорились сформировать совместную ядерную консультативную группу (NCG) для укрепления расширенн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проти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ан заявил, что NCG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плана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азиатской версии НАТО», в котором также участвует Япония.

Аналитик предупредил,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икогда не потерпит» такого действия, заявив, что Пхеньян «шаг за шагом разрушит неправильный выбор враждебных сил более мощной силой».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РК и островные государства Тихого океана приняли совместную декларацию

29-30 мая в Сеуле состоялся первый саммит РК и островных государств Тихого океана. Его участники договорились укрепля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оздавая фундамент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отношений со странами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По итогам саммита была принята совместная декларация из шести пунктов. В ней зафиксирован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морской, климатической,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кибернетической, медицинской и других областях. В документе говорится, что РК обязуется к 2027 году увеличить официальную помощь в целях развития для островных государств Тихого океана до 39 млн 900 тыс. долларов, а также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усилия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финансово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и другой помощи на борьбу с изменением климат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ено защите Мирового океана от загрязнения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радиоактив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Островные государства Тихого океана поддержали заявку РК на проведение Всемирной выставки 2030 года в Пусане. Они подтвердили согласие своих стран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ить саммиты, а каждые два года - переговоры на уровне министро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овместная декларация является дорожной картой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К и тихоокеанских островных государств. В саммит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17 из 18 стран-членов Форума тихоокеанских островов - лидеры 12 стран и высшие должностные лица пяти стран.

## В РК отмен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ый карантин для больных коронавирусом

С первого июня в РК отмен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ый семидневный карантин для больных коронавирусом. Ношение масок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и аптеках становится необязательны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вслед за понижением уровня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о коронавирусе с третьего («осторожность») до второго («бдительность»). Теперь заболевшим коронавирусом рекомендуется оставаться дома в течение пяти дней. Ношение масок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и аптеках будет носить рекоменда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Исключением являются стационары крупных больниц и учреждения, относящиеся к зоне риска зараж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ом. Отменяется рекомендация о проведении ПЦР-тестирования граждан на третий день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в РК из-за рубежа. Вакцинация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прежнему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бесплатно для всех категорий граждан.

## Трое вокалистов из РК вышли в финал Конкурса королевы Елизаветы

Трое вокалистов из РК вышли в финал Конкурса королевы Елизаветы, проходящего в Брюсселе. Как сообщили в жюри конкурса,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полуфиналов, состоявшихся 24-25 мая, баритоны Даниэль Квон и Ким Тхэ Хан, а также бас Чон Ин Хо вошли в число 12 финалистов. Финальные концерты состоятся с 1 по 3 июня. Конкурс королевы Елизаветы, который учредила бельгийская королевская семья, проводится с 1937 года. Он входит в тройку наиболее престижных конкурсов классических музыкантов, наряду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конкурсом пианистов имени Шопен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м конкурсом имени Чайковског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лся среди виолончелистов, и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виолончелистка Чхве Ха Ён. Ранее в числе лауреатов конкурса были такж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калисты - сопрано Хон Хе Ран в 2011 году и сопрано Хван Су Ми в 2014 году. В состав жюри конкурса этого года входит сопрано Чо Су Ми.

## Самолёт Asiana Airlines приземлился с открытой дверью

Самолёт компании Asiana Airlines, выполнявший регулярный рейс из Чечжу в Тэгу, приземлился в аэропорту назначения с открытой дверью. Как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эропорта, инцидент произошёл 26 мая 12:45. Ни один из находившихся на борту 194 пассажиров и членов экипажа не выпал из самолёта и не пострадал. Тем не менее, девяти пассажирам, испытавшим шок, оказана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Полиция задержала одного из пассажиров, который признался в том, что начал дергать рычаг аварийного выхода во время подготовки самолёта к посадке. Причину своих действий он объяснить не смог. Среди пассажиров были 48 учеников начальных и средних школ, направлявшихся в Ульсан на спортив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 Группа BTS отмечает своё десятилетие

С 31 мая по 17 июн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группа BTS проведёт серию мероприятий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BTS FESTA, посвящённой десятилетию группы.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одюсерском агентстве Big Hit Music, группа проводит подо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ежегодно в начале июня. 31 мая в соцсетях BTS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календарь событий, в котором обозначены детали FESTA. Основ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амечено на 13 июня, когда группа впервые вышла на сцену.

(RKI)

## КНДР официально уведомила о намерении произвести запуск ракеты-носителя со спутником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фициально уведомила Японию и Международную морскую организацию (ИМО) о намерении в период с 31 мая по 11 июля произвести запуск ракеты-носителя, который выведет на орбиту Земли искусственный спутни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ссылаясь на публикацию японского телеканала NHK и заявление Агентства мор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Японии.

Согласн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й Агентством мор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Японии информации, от властей КНДР оно получило уведомление, что в период с полуночи 31 мая до полуночи 11 июн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изведет попытку вывода на орбиту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спутника. Отмечается также, что в этой связи установлена опасная зона, куда возможно падение разгонных блоков ракеты и куда не рекомендован заход судов и пролет самолетов.

Телеканал NHK отмечает, что эту же информацию Пхеньян довел и до Международной мор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ИМО), уточнив, что в качестве опасных районов выделены три зоны - две в районе Желтого моря и одна к востоку от Филиппин. Телеканал отмечает, что "все районы находятся за пределами исключите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ы Япони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уже разослано судам.

Напомним, что признаки подготовки КНДР к запуску спутника фиксировались уже достаточно давно. В качестве стартовой площадки скорее всего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н космодром "Сохэ" в северо-западной части страны.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планах заявляли различные официаль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НДР. Эта задача также включена в список целей, который были утверждены на VIII съезде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в январе

2021 г. 16 мая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проверил работу Комитет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запуску спутника, санкционировав "план дальнейших действий". Тогда было отмечено, что спутник уже прошел серию финальных тестов и готов к установке на ракету-носитель.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до настоящего момента уже четыре раза заявляла о планах вывести спутник на орбиту, производя запуски. При этом дважды она смогла вывести какие-то объекты на орбиту, но они, согласно мнению зарубежных экспертов, скорее всего были муляжами спутников и не выполняли никаких функций. На этот раз, судя по заявлениям КНДР, на орбиту будет выведен военны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й спутник.

Отметим, что совсем недавно, 25 мая, Южная Корея с космодрома "Наро" на юге страны произвела запуск собственной ракеты-носителя "Нури", которая успешно вывела на орбиту восемь небольших спутник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еул подтвердил статус космической державы, способной создавать спутники и выводить их на орбиту, и элитный клуб космических стран расширился до семи. Если КНДР успешно запустит спутник, то она станет восьмой.

США и Южная Корея, несмотря на общепризнанное право государств на мир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космоса, уже осудили планы Пхеньяна. Вашингтон и Сеул указывают, что даже "мирный запуск" будет нарушением введенных против КНДР санкций ООН, которые запрещают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тарты с применением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Впрочем, КНДР регулярно игнорировала эти запреты, производя уже десятки ракетных запусков.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 Южная Корея обновит систему экстренных оповеще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перестроит свою систему экстренных сообщений после ошибочного оповещения, чтобы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будущим ракетным пуска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заявили 1 июня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Утром 31 мая жители Сеула проснулись от воя сирен воздушной тревоги и экстренных предупреждений по мобильному телефону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эвакуации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пустила ракету-носитель.

Оповещение застало людей врасплох, поскольку в нём не объяснялось, почему их просят эвакуироваться. Ещё больше усугубило неразбериху повторное оповещение, отправлен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м внутренних дел о том, что предыдущее сообщение было ошибочным.

Система оповещения будет обновлена, чтобы предоставлять точ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м, "кто, когда, где, что, как и почему", чтобы население могло адекват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подобные события в будущем, сооб-

шил чиновник из аппарата президента.

Тем временем,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 лице сестры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Ё Чжон, пообещала осуществить повторный запуск военного спутник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запуск 31 мая закончился неудачей.

Она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запуск спутник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рамках суверенного права КНДР на самооборону и подвергла резкой критике "лицемерные" заявления США и ряда других стран, которые считают, что Пхеньян нарушает резолюции ООН. "Если они осуждают запус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путника, то следует осудить США и все другие страны, которые уже запустили тысячи спутников", - подчеркнула Ким, отметив, что американская критика действи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является ещё более абсурдной, поскольку сам Вашингтон развернул свои средства наблюдения над всем Корейским полуостровом.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Вся Корея».

## Полеты обойдутся дешевле

Сеул, 29 мая – ИА РУСКОР

Южнокорейские авиакомпании снизят свои топливные сборы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аршрутах в июн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адением цен на авиатопливо, сообщили отраслевые источники.

Согласно источникам,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надбавки за билеты в один конец на дальнемагистраль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аршрутах будут ограничены суммой в 107 800 вон (81,14 долларов США), что на одну ступень ниже, чем в мае.

Если средняя цена на авиатопливо на сингапурском спотовом рынке превышает 1,50 доллара за галлон, местным авиакомпаниям разрешается вводить топливные сборы. Существует 33 уровня надбавок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маршрута.

На сингапурской бирже с 16 апреля по 15 мая цены на авиатопливо составляли в среднем 218,13 доллара за галлон. Топливные сборы на внутренних маршрутах составят 9 900 вон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не изменившись с ма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боры на внутренних маршрутах взимаются, если средняя цена авиатоплива превышает 1,20 доллара за галлон.

## Позвонить из казармы станет проще

Сеул, 25 мая – ИА РУСКОР

Военные Южной Кореи планируют расширить пробную программу, позволяющую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пользоваться мобильными телефонами на своих базах в конце этого года в рамках более широких усилий по повышению их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сообщило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С июля по декабрь программой будут охвачены около 60 000 призывников, что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20 процентов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имерно 17 000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участвовавших в ее предыдущем раунде,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с июня по декабрь прошлого года.

Раньше призывникам запрещалось носить мобильные телефоны по соображениям безопасности, но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едставило программу, чтобы изуч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ее более широкого применения на фоне растущего ощущения, что она может помочь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связаться со своими семьями и друзьями и получить информацию, в том числе 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В рамках расшир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будет разрешено пользоваться личными телефонами с утренней переклички, обычно около 6 или 7 утра, до 9 вечер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авилами, которые гарантируют, чт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их телефонов не повлияет на их обязанности или не вызовет каких-либо проблем с безопасностью.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мог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телефонами с 18:00 до 21:00 по будням и с 8:30 до 21:00 по выход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 разрешить новобранцам в военных учебных лагерях пользоваться мобильными телефонами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часа по выходным и праздничным дням.

## Сахалинцам стало проще приобрести внутридомовое газ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Владельцы частных домов, которые готовятся к переходу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е топливо, 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в кредит, минуя поход в банк. А льготным категориям жителей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ивского 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компенсируют значительную часть этих затрат.

Для удобства сахалинцев специалист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энергетики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догазификации разработали новый механизм покупки внутридом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 плит, водонагревателей, отопительных котлов, приборов учета потребления газа,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игнализации. К решению задачи подключились также и областной минсельхозторг.

–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мы скоординировали торговые предприятия с банками по вопросу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газ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в кредит без похода человека в банк. Сервисная услуга будет предложена финансово-кредит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магазинах,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на Павленко.

Сейчас к программе подключились два магазина, в которых реализуют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газификации объектов, и четыре банка. Приобрести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без лишних хлопот можн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агазин «Газлайн» (Амурская, 96), «Все для газа» (Отдаленная 57а).

Сахалинцы уже успели оценить результат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бизнеса и власти.

– У меня нет времени, чтобы идти в отделение банка, подавать справки и ждать ответа по заявке. Сегодня я пришел в магазин, здесь же за 10 минут специалист оформила заявку, и я забрал газовый котел. Очень удобно, – поделился житель Анивы Михаил Шахназарян.

Сегодня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голубое топливо используют более 600 домовладений и до конца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подключить не менее 50 домов. В районе по вопросам догазификации создан штаб волонтеров. Активисты помогают заполнить и направить Единому региональному оператору газификации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 В Новотроицком жители с улицы Цветочной уже подписали договоры по поданным заявкам. Срок реализации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газификации определен до конца 2024 года. До этого времени домовладельцы должны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приему газа,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а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Светлана Швец.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азываются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тем, кто решил подключить свой дом к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му топливу. Жителям региона возмещают до 152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подготовку домовладения к приему газа – устройство внутридомовой системы газоснабжения, фасадные газопроводы, монтаж оборудования. Право на эту меру поддержки имеют все сахалинцы. Помимо этого, в трех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льготным категориям граждан компенсируют часть затрат на покупку внутридомового газоиспользующе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Сумма компенсации составляет 50 тысяч рубл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60 тысяч рублей –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одключение дома к чистому топливу можно в офисах компании, отделениях МФЦ, а также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 Организована горячая линия: \*0065 с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или 8-800-302-0065 со стационарного.

Напомни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овместно с Газпромом реализуется масштабная программа газификации. До 2025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ть техническую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газификации всех районо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На Курилах предусмотрена автономная газификация за счет технологий СПГ.

## На Сахалине ввел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самый современны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тепличный комплекс

Первый урожай в новой теплице островного совхоза «Тепличный» созреет уже на этой недел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здесь будут выращивать огурцы, а затем томаты и другие культуры. С запуском новых мощностей потенциал производства овощей увеличился с 8 до 10 тысяч тонн в год.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лично поздравил руководителей и работников совхоза с открытием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 Хотелось бы поздравить работников совхоза, все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 запуском нового тепли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Теперь на островных прилавках будет еще больше свежих овощей.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людей,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Совхоз «Тепличный» является гордостью нашей области. Здесь работают профессионалы самого высокого класса. Желаю руководству и сотрудникам предприятия больших трудовых успехов.

Ввод новой теплицы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позволил увеличить площадь защищенного грунт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а 20 процентов. Площадь комплекса – 2,9 гектара.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предприятие направило 8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овые теплицы отличаются от ранее построенных.

Их высота – шесть метров. Это дае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агрономам предприятия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 управлять системой микроклимата, в том числе позволяет применять современную систему досвечивания.

– Мы не только построили новый тепличный комплекс, но и подготовили всю необходимую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 газовую котельную, инженерные сет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Если возник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расширении рынка сбыта продукции, мы готовы к реализации своих планов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второй и третьей очереди тепли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совхоза «Тепличный» Виктор Бутков.

Отметим, совхоз «Тепличный» является крупнейши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едприятием по выращиванию овощей в защищенном и открытом грунте. С августа 2016 года является резидентом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Южная». С 2013 по 2017 годы предприятие реализовало масштабный проект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теплиц.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доля привозных овощей закрытого грунта была сведена до минимума.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ый комплекс заменил 6 гектаров морально устаревших теплиц, построенных в середине 1980-х годов.

Сегодня предприятие круглогодично выращивает 8 тысяч тонн овощей защищенного грунта, 4,9 тысяч тонн овощей открытого грунта, 4,5 тысячи тонн картофеля.

В течение следующих лет предприятие планирует существенно расширить тепличный комплекс, построить розарий, сервисные центры, питомник открытого типа для выращивания кустарников и деревьев, ландшафтный центр.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совхозу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субсидии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элитных семян картофеля, удобрений, а такж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техники и оборудования. Кроме того, была оказана финансовая помощь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и модернизации тепличных комплексов, кадровом обеспечении.

## 3,08 млрд рублей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расселение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получил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Федер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направляется в регионы, которые досрочно завершили предыдущую программу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Из всех субъектов, успешно справившихся с этой задаче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ает наибольший объем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расселение непригодных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домов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из бюджета РФ направили 11 млрд рублей. На этот год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одобрило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в размере 6,1 млрд рублей. Половина от этой суммы уже доведена до региона.

Средства предназначены на реализацию первого этапа новой программы переселения людей из домов, признанных аварийными с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до 1 января 2022 года.

– Первоочередная задача – переселить людей из старого,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где зачастую жить не то, что некомфортно, но и опасно. В 2021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вой в стране завершила программу расселения жителей из домов,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изнаны аварийными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Это позволило нашему региону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и сразу приступить к реализации следующей программы. Работы остается еще много, но с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ой из бюджета РФ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смогут быстрее отпраздновать новоселье,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грамма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различные механизмы: выплата выкупной стоимости за изымаемое жиль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и приобретение квартир на вторичном рынк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2666 людей переехали в новостройки. 1240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захотели получить выкупную стоимость за аварийные квартиры.

– Все федеральные средства,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м в область в 2021 и 2022 годах, с учето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уже доведены до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Часть средств мы направили на выплату выкупной стоимости, на остальные мы строим новые дома, приобретаем квартиры в строящихся домах.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м ввести 146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нового жилья для расселения людей из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В комфортные квартиры переедут более 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Отметим, начиная с 2021 года,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переселено более 9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этом году улучшили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более 1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До конца года новоселье должны отметить еще 4 тысячи островитян.

## ДОМ.РФ реализует новые проекты создания транспортной и инженер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Сахалине

ДОМ.РФ прорабатывает примене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облигаций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новых проектов на Сахалине. Подробно о возможностях механизма на совещани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подразделен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е облигации» ДОМ.РФ Оксана Харченко.

В частности, на совещании речь шла о проектах модернизации системы теплоснабжения в Долинском и

Корсаковском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Размер займа по первому проекту составит 1,3 млрд рублей, по второму – 2,2 млрд рублей. Их реализация в сумме позволит ввест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более 307 тыс. кв. м жилья.

– Сахалин – в числе лидеров по применению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облигаций. Эффе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озможности механизма в регионе помогают поддержка местных властей, комплексная экспертиза проектов и анализ рисков со стороны ДОМ.РФ, а также слаженная работа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процесса.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оба проекта получат одобрение летом 2023 года, – отмет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подразделен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е облигации» ДОМ.РФ Оксана Харченко.

Одновременно ДОМ.РФ прорабаты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льгот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в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объектов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ряде новых жилых микрорайон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С помощью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облигаций мы планируем обеспечить комфортным жильем 6000 семей на Сахалине.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тал одним из пилотных в России, где уже применяется механизм льгот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крупного микрорайона «Уюн-пар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ы готовы открывать новые направления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нашим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партнером – ДОМ.РФ. Есть перспективы для создания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новых жилых комплексах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а также модернизаци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 районах, – подчеркну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ей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уже одобрено три проекта по создани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площадке «Уюн» с общим объемом займов около 11 млрд рублей. С помощью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облигаций ид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участков автомобильной дороги, обустраиваются тепловые и электрические сети. На площадке будет введено почти 300 тыс. кв. м современного жилья.

##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нил действовавший более трёх лет режим повышенной готовности из-за COVID-19

Решение об отмене режима повышенной готовности принято в связи со стабилизацией санитарн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в регионе на основании заключения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указ подписал губернатор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е предыдущ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ые акт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ровня о мерах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и внесении в них изменений утратили силу.

Режим повышенной готовности для органов управления, сил и средств из-за COVID-19 действовал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18 марта 2020 года. Он давал возможность быстро и эффективно решать возникающие в ходе борьбы с пандемией задачи и замедл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нфекции в регионе.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Ольга Фунтусова отметила, что в режим повышенной готов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ступила позже других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и. Это было оправдано географическим положением региона и развитием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 Пандемию коронавируса острова прошли более-менее спокойно. Показатели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не достигли критических значений, своевременно принимались меры ограничите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 подчеркнула Ольга Фунтусова. – Чтобы определить, насколько сегодня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регионе управляема и стабильна, был проведен комплексный анализ сразу по нескольким показателям. Так, за последние недели у нас отмечается стойкое снижение уровня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ей, а темп прироста и вовсе имеет отрицательное значение – 18,2 процента. При этом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нет занятых коек с аппаратами ИВЛ. Также мы учитывали охват тестирования, уровень коллективного иммунитета и удельный вес коек, развернутых для лечения пациентов с COVID-19.

Несмотря на отмену режима повышенной готовности, в систем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охраняются резервы для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пациентам, заразившимся инфекцией. Продолжается работа по выявлению и обследованию заболевших. При наличии показаний пациентов направляют на госпитализацию или лечат амбулаторно. Кроме того, в лечебно-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 где это необходимо – сохраняется масочный режим, помещения регулярно дезинфицируют.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находятся люди из группы риска. Это медици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люд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постояльцы соци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Напомним, в рамках работы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бъектах,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и местах массового пребывания людей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илась дезинфекция. По мер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учрежд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переводились на дистанционный режим обучения, удаленно работали сотрудники ряда предприятий регион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최재형 선생 부인 유골 고국 봉환에 앞서 고유제 지내

## 독립운동가최재형선생기념사업회와 전주 최씨종중 후손 20여명이 직접 키르기즈 방문

독립운동가최재형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문영숙)와 전주 최씨종중(결성공파 회장 최종훈) 후손 20여명은 5월 25일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시내 세베르노이 공동묘지에 안장된 최재형 선생의 부인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1880~1952) 여사 묘지에서 고유제를 지냈다.



독립운동가최재형선생기념사업회와 전주 최씨종중 후손 20여명은 5월 25일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시내 세베르노이 공동묘지에 안장된 최재형 선생의 부인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1880~1952) 여사 묘지에서 고유제를 지냈다. (사진 전상중 재외기자)

고유제는 국가와 사회 및 가정에 큰일이 있을 때 신령에게 그 사유를 고하는 제사다. 전주 최씨종중에서는 최재형 선생의 부인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의 유골을 고국으로 봉환하기 위한 준비를 알리는 행사로서 한국의 전통방식으로 고유제를 지내기 위해 제례복은 물론 전통 제수까지 공수해 왔다.

이날 고유제는 공동묘지 진입로에서부터 제례복을 차려입은 후손들이 최재형 선생과 부인의 영정을 들고 묘지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됐고, 이 자리에는 주키르기즈공화국한국대사관 이원재 대사와 박기석 영사도 참석했다.

조현관을 맡은 전주 최씨 결성공파 최종훈 회장은 축문에서 "연해주 대부호였던 최재형 할아버지는 엄청난 재산을 오직 조국 광복만을 위해 돕다가 일본군에 의해 총살당할 후 시신마저 찾을 수 없었다"며 "옆에서 독립운동의 뒷바라지를 해오신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할머니의 묘지를 늦게나마 찾아 시베리아 차가운 땅, 키르기스스탄에서 이렇게나마 사후 71년 만에 제를 올리게 됐다"고 고하고 "조간간 고국 땅으로 이장해 합장하려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문영숙 최재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제 국립 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 108번(최재형의 묘 터)을 복원해 두 분을 합장해줄 것을 보존처에 요청한 상태"라며 "하루 빨리 두 분이 합장된 모습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박진 장관, 카자흐스탄서 동포·기업인 간담회 가져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첫 일정으로 5월 31일 오전 알마티에서 동포·기업인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카자흐스탄 진출 우리 기업인과 한인단체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내 최대 교역국이며 우리나라의 1위 투자국이 될 만큼 양국 경제협력의 확대된 데에는 우리 동포, 기업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하고,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준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장관은 이어 "세계 9위의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광물자원을 가진 카자흐스탄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속에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동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카자흐스탄과 플랜트,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첫 일정으로 5월 31일 오전 알마티에서 동포·기업인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외교부)

공급망,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기준 중앙아시아 여타 4개국 교역액 합계가 27억불인데 비해, 한-카자흐스탄 간 교역액은 65억불이며, 2022년까지 한국의 대(對)카자흐스탄 투자액 누계는 41억불로 집계됐다.

박 장관은 또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을 통해, 우리 정부가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속한 영사서비스 제공은 물론 동

포사회 권익신장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과 한인단체 대표들은 카자흐스탄의 물류 통관 적체 등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번 카자흐스탄 방문 기간 중 예정된 누르틀레우 외교장관과의 회담과 토카예프 대통령 예방을 통해 우리 기업활동과 교민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 '2023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대학수학준비과정(가을) 참가자 모집

국립공주대학교는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는 '2023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초청교육과정-대학수학준비과정(가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월 29일 밝혔다.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은 1962년부터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국제화 마인드 배양을 위해 실시한 국립국제교육원의 모태 사업으로, 고국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2009년부터 공주대학교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대학수학준비과정(가을)은 국내 대학(원) 진학 및 한국어 능력 향상을 교육 목표로 하는 과

정으로, 총 5개월간(2023. 9. 5. ~ 2024. 1. 18.)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재외동포는 거주국 재외공관 및 재외한국교육원, 제일본대한민국민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교육경비 전액, 항공료 70%(일부 국가 제외)가 지원되며,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 교육경비 전액과 항공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홈페이지(www.hansaram.kongju.ac.kr) 또는 거주 지역 재외공관·한국교육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신문)

# 제2회 세종한국어평가, 14개국 23개소 세종학당 시행

## 세종학당재단이 개발한 한국어 능력 시험 듣기·읽기·쓰기·말하기 4개 영역 종합 평가

###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종학당 수료생 및 학습자 대상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은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14개국 23개소 세종학당에서 세종학당 수료생과 학습자를 대상으로 '제2회 세종한국어평가(Sejong Korean Language Assessment, 이하 SKA)'를 시행한다고 5월 25일 밝혔다.

'세종한국어평가(SK A)'는 한국어를 모어가 아닌 제2언어나 외국어로 학습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듣기·읽기·쓰기·말하기 총 4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한국어의 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총 170분간 듣기·읽기 영역(각 50분, 각 50문)은 객관식으로, 쓰기 영역(5개 문항, 50분)과 말하기 영역(8개 문항, 20분)은 주관식으로 평가한다.

응시자들은 한국어 실력에 상관없이 단일 시험을 통해 초급부터 고급 수준까지의 한국어 숙달도를 측정하고 자신이 받은 성적에 따라 한국어 능력 수준을 검증해볼 수 있다.

'제2회 세종한국어평가(SK A)'는 사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나만간 세종학당에서 학습자들이 세종한국어평가(SK A)에 응시하고 있다. (사진 세종학당재단)

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지역 14개국 23개소 세종학당에서 치러진다.

듣기·읽기·쓰기 평가는 5월 27일에 시행되며, 말하기 평가는 비대면 인터뷰 방식으로 5월 28일부터 6월 4일 중에 각 세종학당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지난 2022년 9월 첫 시행된 '제1회 세종한국어평가(SK A)'는 20개국 27개

소 세종학당에서 치러졌다. 올해는 이번 5월 '제2회 세종한국어평가(SK A)'를 시작으로 9월(제3회), 11월(제4회)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한국어평가(SK A)'를 집체 방식의 지필평가와 더불어 응시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어디에서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인터넷 평가 방식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인터넷 평가는 응시자의 수준에 따라 평가 문항의 난이도가 조절되는 단계적 적응형 방식을 적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한국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올해 모의 시행을 통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은 "세계 각국의 현지 세종학당에서 '세종한국어평가(SK A)'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응시자들이 '세종한국어평가(SK A)' 결과를 입학,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 지리산 영감 받은 '한국정원', 영국 첼시 플라워쇼 금상 수상

## 황지해 작가의 '백만년 전으로부터 온 편지'

황지해 작가의 지리산을 모티브로 한 한국정원 '백만년 전으로부터 온 편지'가 지난 5월 23일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서 주요 경쟁 부문(쇼가든) 금상을 수상했다고 산림청이 밝혔다.

첼시 플라워쇼는 영국 왕립원예협회(RHS)가 주최하는 세계적인 가든쇼로 1913년 시작됐다. 이 가든쇼에서 황지해 작가는 지난 2011년 '해우소'로 아티즈가든 부문 금상과 최고상, 2012년에는 '디엠지(DMZ) : 금지된 정원'으로 쇼가든 부문 전체 최고상과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수상은 황지해 작가가 11년 만에 첼시 플라워쇼에 복귀해 이룬 쾌거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원문화가 국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았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으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다.

산림청은 정원문화 활성화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해 정원박람회 및 가든쇼를 통해 유망한 정원 작가를 발굴하고 있으며, 정원 작가를 꿈꾸는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원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원소재로 활용가치가 높은 자생식물을 발굴하고, 특성 강화를 위해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권 깊숙이 숲을 끌어온 것이 바로 정원이다. 산림청은 한국정원의 세계화를 위해 국제적인 가든쇼에서 성과를 보여준 황지해 작가와 같은 유망한 정원작가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Социальная палатк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крытый шатер, где можно бесплатно получить горячее питание, одежду и средства гигиены. Ежедневно помощь могут получать более 50 человек.

– Мы работаем, активно привлекая волонтеров. Перед началом работы мы провели для ребят стартовый тренинг, чтобы погрузить их в проект и в игровой форме проработать все сложности, которые потенциально могут возникнуть. Также мы будем ежемесячно проводить тренинги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добровольческого выгорания, решению конфликтных ситуаций и поддержанию позитивного настроения волонтерской команды. В этом нам поможет штатный психолог реготделения РКК, рассказа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КК Илона Волошина.

## 사할린, 2023년 여름 오토바이 경주 시즌 개막

2023 오토바이 경주 시즌의 공식 개막이 5월 27일(토)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 사할린의 오토바이 운전자, 바이커 및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였다.

2023년 오토바이 경주 시즌 개막식이 '아레나 시티' 단지 앞마당에서 열린 가운데 주최 측과 교통경찰 측에서 환영 연설을 했다. 개막식에는 러시아 레드 앤 화이트 모터사이클 부대 클럽( Red & White Army MC Russia), 아미고 사할린(Amigos Sakhalin), 로닌 러시아(Ronin Russia), '사할린의 곰들'을 비롯해 여성 오토바이 클럽 윙스(Wings)도 참가했다. 사할린 주민들과 블라디보스토크의 주민들도 축하하러 왔다.

"시즌 개막은 대규모 오토바이의 축제이자 겨울 내내 만나지 못했던 오랜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러시아 레드 앤 화이트 부대 클럽(Red & White Army MC Russia)의 사할린 지부 회장 로만 살노브가 말했다. 행사는 사할린 록 밴드 그룹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 летний мотосезон-2023

Официальное открытие мотосезона-2023 состоялось в субботу, 27 ма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 мероприятии собрались островные мотоциклисты, байкеры и сотни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мотосезона-2023 прошла на площадке возле комплекса «Арена Сити». С приветственной речью выступ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и сотрудники ГИБДД. На открытии собрались члены таких сахалинских байкерских клубов, как Red & White Army MC Russia, Amigos Sakhalin, Ronin Russia, «Медведи Сахалина» и другие, в том числе женский клуб Wings. Поздравить сахалинцев приехали и их собратья с Владивостока

– Открытие сезона – это большой мотоциклетный праздник, который также является встречей старых друзей, с которыми мы не виделись всю зиму, – рассказал прези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мотоклуба Red & White Army MC Russia Роман Шальнов.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должилось выступлением местных рок-групп.

## 러시아 내무부, 2023년 6월부터 칩이 내장된 해외여권 발급 재개

전자정보가 실린 새로운 형태의 해외 여권이 언제 발급되는지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 거주 국민들은 2023년 6월에 두 가지 방법으로 전자여권 발급을 위한 서류 신청을 할 수 있다.

러시아 내무부 공식 대변인인 이리나 윌크에 따르면 2023년 6월1일부터 내무부의 전문가들이 10년 유효기간의 칩이 내장된 새로운 형태의 해외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재개할 예정이다.

'사할린 경찰'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이러한 해외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국민에게는 몇 가지 신청서 제출 방법이 있다. 국민들은 러시아 지역 내무국에 국가 관할 다기능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서비스과를 통해 직접 찾아가 제출할 수 있고, 공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포털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외 여권에 도입된 전자정보 칩은 디지털 방식으로 정보

자료들의 저장 및 전달을 위한 추가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개량된 해외 여권으로 국경 이동 및 전자서비스 이용 시 여권 소지자의 신원과 조회 절차를 간편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2월에 전자칩이 탑재된 해외 여권 발급이 중단되었었는데, 이유는 생체인식을 저장하는 칩을 내장한 여권 발급에 있어 모스크바의 '고즈낙' 인쇄 공장의 기술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 МВД России возобновит выдачу загранпаспортов с чипом в июне 2023 года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когда начнут выдавать загранпаспорта нового образца с электронным носителем информации. Жители России с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выдачу документа двумя способами уже в июне 2023 года.

По информации официаль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ВД России Ирины Волк, с 1 июня 2023 года специалисты ведомства возобновят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на выдачу заграничных паспортов нового образца с чипом, срок действия которых составляет 10 лет.

Как сообщает Telegram-канал «Сахалинская полиция», граждане, желающие получить такой заграничный паспорт, имеют несколько вариантов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Они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й орган МВД России через отделения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слуг. Также возможно направить заявление в форме электронного документа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слуг.

Электронный носитель информации, внедренный в заграничные паспорт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и передачи данных в цифровом формате. Это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позволяет облегчить процедуру проверки и идентификации владельца паспорта при пересечении границы 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электронных сервисов.

Напомним, что паспорта с электронным чипом перестали выдавать в феврале 2023 года. Тогда выпуск загранпаспортов с чипом, хранящим биометрию, остановили по технической причине, произошедшей на Московской печатной фабрике АО «Гознак».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 полугодие 2023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606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옥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